

# KLSI

## ISSUE PAPER

www.klsi.org

###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7년 3월 현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목차]

1. 전체
2. 남녀
3. 규모
4. 산업
5. 시도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7. 재벌 기업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9. 합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 <요약>

-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7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 둘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12개(26.7%)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6개(20.4%)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 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0만 명(31.6%)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4%)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2만 명(40.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2만 명(21.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 명(19.0%)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9만 명을 정규직 31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5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3만 명(46.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6만 명(32.9%)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6만 명(13.9%)으로 줄어든다.
- 넷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2.5%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8%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1.5%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다.

- 다섯째,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37.6%로, 간접고용 비정규직(29.5%)이 직접고용 비정규직(8.1%)보다 4배 많다. 특히 GS(58.9%), 롯데(54.6%), 현대중공업(53.2%)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LG는 비정규직 비율이 16.2%로 10대 재벌 중 비정규직을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다.
- 여섯째,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재벌은 삼성, 롯데, GS 3개다.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47.4%에서 54.6%로 7.2%p 증가했고, 한화는 39.7%에서 43.7%로 4.0%p 증가했다. GS는 56.5%에서 58.9%로 2.4%p 증가했고, 삼성은 35.8%에서 37.4%로 1.6%p 증가했다. 조선 업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내하청이 크게 줄어든 현대중공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65.2%에서 53.2%로 12.0%p 감소했고, 포스코는 52.6%에서 42.2%로 10.4%p 감소했다.
- 일곱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 2016년에는 190만 명(40.1%),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 여덟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 명이고, 10대 재벌 대기업은 40만 명이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7년 3월 현재)-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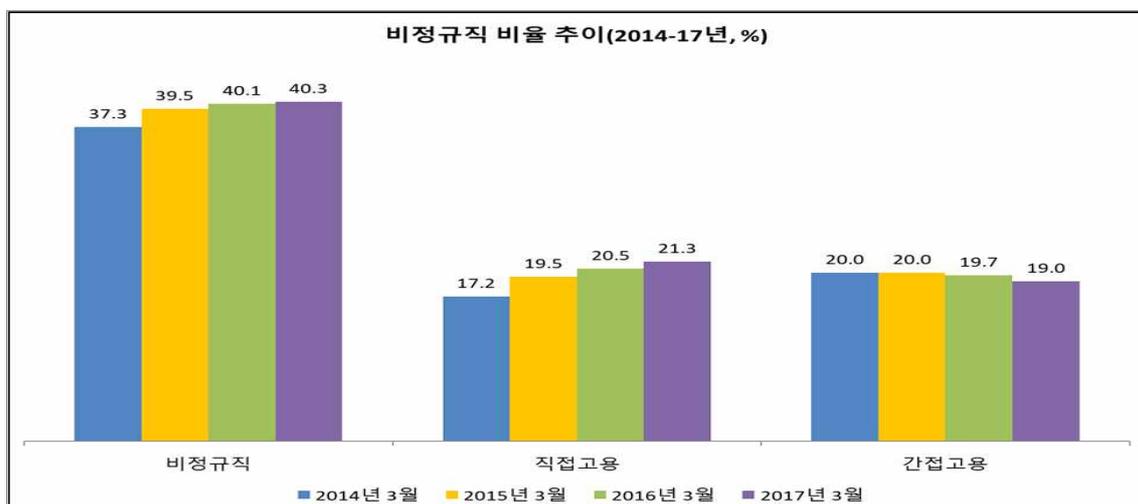
## 1. 전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2,942개소에서 2015년 3,233개소, 2016년 3,464개소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3,418개로 조금 감소했다<sup>1)</sup>.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14년 436만 명, 2015년 459만 명, 2016년 474만 명, 2017년 47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사이 정규직은 274만 명에서 284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62만 명에서 192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에서 102만 명으로 27만 명 증가했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했다.<sup>2)</sup>

비정규직 비율은 37.3%에서 40.3%로 3.0%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7.2%에서 21.3%로 4.1%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에서 19.0%로 1.0%p 감소했다.

[그림 1]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1) 2017년에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이 줄어든 것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공시 대상을 300개에서 236개로 줄였기 때문이다.

2) 간접고용이 2016년 93만 명에서 2017년 90만 명으로 3만 명 감소한 것은, 조선업종 구조조정으로 사내하청이 1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5만 명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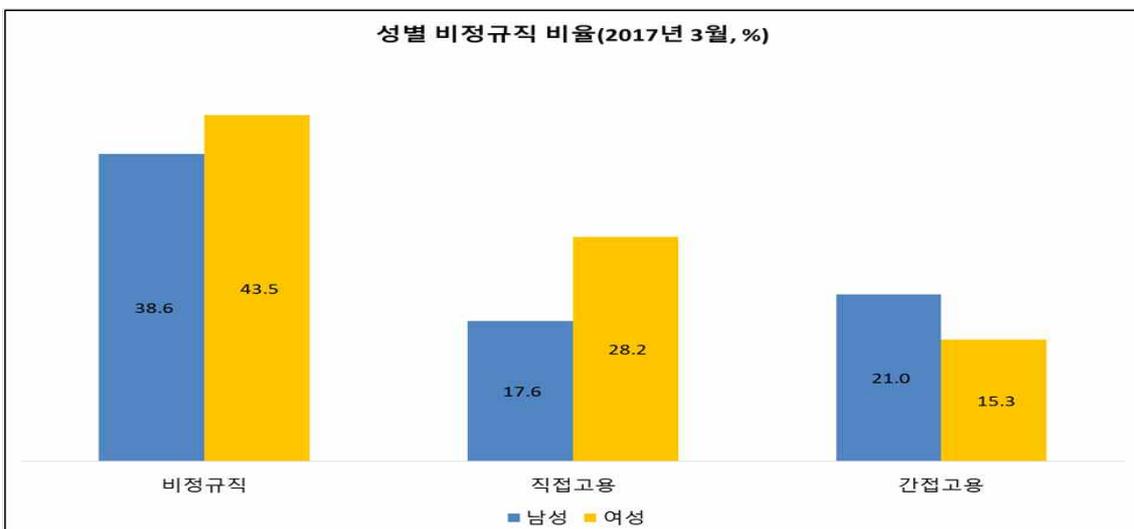
	연도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규 모	2014년 3월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2015년 3월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2016년 3월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2017년 3월	3,418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증 감	2014-15년	291	235	43	192	148	170	45	2.2	2.3	2.9	0.0
	2015-16년	231	144	58	85	71	58	13	0.6	1.0	0.7	-0.3
	2016-17년	-46	18	2	17	46	28	-29	0.2	0.9	0.5	-0.7
	2014-17년	476	397	103	294	265	256	29	3.1	4.1	4.1	-1.1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각년도

## 2. 남녀

고용형태공시제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309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19만 명(38.6%)이다. 남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65만 명(21.0%)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54만 명(17.6%)보다 많다. 여성 노동자 167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3만 명(43.5%)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7만 명(28.2%)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26만 명(15.3%)보다 많다. 1년 전에 비해 남성 비정규직은 1만 명(0.1%p) 감소하고, 여성 비정규직은 3만 명(0.7%p) 증가했다.

[그림 2] 성별 비정규직 비율(%)



<표 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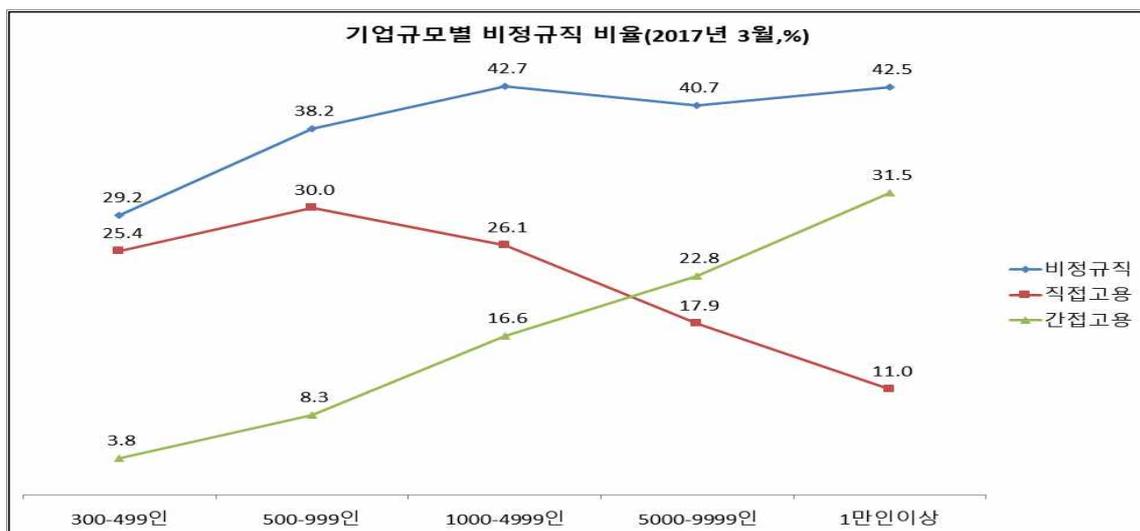
성별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남자	3,086	1,895	1,191	544	524	647	38.6	17.6	17.0	21.0
여자	1,668	943	725	470	403	255	43.5	28.2	24.2	15.3
전체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 3. 규모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는 300인 미만 기업(236개소 4만 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즉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2.5%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8%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1.5%다. 이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30.0%)을 정점으로 1만인 이상 거대기업(11.0%)까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그림 3]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표 3>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기업규모 (전체노동자 기준)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300인 미만	236	44	28	15	14	13	1	35.3	32.3	30.9	3.0
300-499인	1,115	441	312	129	112	106	17	29.2	25.4	24.1	3.8
500-999인	1,143	793	490	303	237	230	66	38.2	30.0	29.0	8.3
1000-4999인	778	1,500	860	640	391	377	249	42.7	26.1	25.1	16.6
5000-9999인	88	614	364	250	110	92	140	40.7	17.9	15.1	22.8
1만인이상	58	1,363	784	580	150	108	429	42.5	11.0	7.9	31.5
전규모	3,418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300인 이상	3,182	4,711	2,809	1,902	1,001	914	901	40.4	21.2	19.4	19.1

#### 4. 산업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12개(26.7%)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6개(20.4%)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0만 명(31.6%)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4%)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그만큼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7.5%)과 부동산임대업(70.2%), 숙박음식점업(65.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55.1%), 교육서비스업(48.9%)이 높고, 하수환경복원업(22.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21.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0.4%), 전기가스수도사업(15.9%)은 낮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동산임대업(54.2%),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1.3%), 숙박음식점업(48.5%), 교육서비스업(40.8%)이 높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47.7%), 운수업(23.7%), 제조업(21.6%), 광업(21.4%)이 높다.

<표 4>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대분류 기준)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농림어업	3	2	1	0.5	0.4	0.3	0.1	23.9	19.5	17.5	4.5
광업	1	1	1	0.2	0.0	0.0	0.2	26.1	4.7	4.7	21.4
제조업	912	1,501	1,122	379	54	52	325	25.2	3.6	3.5	21.6
전기가스수도사업	11	8	7	1	0	0	1	15.9	0.0	0.0	10.7
하수환경복원업	6	3	3	1	1	1	0	22.9	21.5	20.9	1.4
건설업	322	522	117	404	156	153	249	77.5	29.8	29.3	47.7
(생산자서비스업)	1,082	1,233	668	564	454	439	110	45.8	36.8	35.6	8.9

금융보험업	147	314	226	87	31	30	57	27.9	9.8	9.6	18.1
부동산임대업	90	103	31	72	56	55	16	70.2	54.2	54.0	15.9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49	130	103	26	15	15	11	20.4	11.9	11.8	8.5
사업시설관리	696	687	309	378	352	338	26	55.1	51.3	49.2	3.8
(유통서비스업)	549	825	554	271	120	83	151	32.9	14.6	10.1	18.3
도소매업	211	373	224	150	76	51	74	40.1	20.3	13.6	19.8
운수업	179	220	148	72	20	19	52	32.7	8.9	8.7	23.7
출판영상방송통신	159	231	182	49	25	14	25	21.4	10.7	5.9	10.6
(개인서비스업)	148	236	105	132	98	71	34	55.7	41.5	30.0	14.3
숙박음식점업	74	172	60	112	83	57	29	65.2	48.5	32.9	16.7
예술스포츠여가	20	13	9	4	2	2	2	31.4	19.3	19.2	12.0
협회단체수리기타	54	52	36	15	12	12	3	29.9	23.5	22.8	6.5
(사회서비스업)	384	424	260	164	131	128	33	38.6	30.8	30.1	7.8
공공행정국방	4	20	13	7	4	4	3	33.5	19.9	19.9	13.6
교육 서비스업	151	218	111	107	89	87	18	48.9	40.8	40.1	8.1
보건업사회복지	229	187	136	51	38	36	13	27.2	20.3	19.5	6.9
전산업	3,418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61.5%), 철강금속(40.4%), 음식료(28.1%), 화학물질(26.2%), 전기장비(21.6%), 기타(21.4%),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18.3%), 자동차 및 트레일러(17.6%), 기계 및 장비(16.1%), 섬유의복가죽(14.8%) 순이다.

제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특히 조선(59.2%)과 철강금속(38.4%)에서 높다.

지난 1년 사이 조선 업종 노동자는 19만 7천 명에서 13만 명으로 6만 7천 명 감소했다. 정규직은 6만 2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만 2천 명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3만 5천 명에서 8만 명으로 5만 5천 명 감소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비율은 68.5%에서 61.5%로 7.0%p 감소했고, 사내하청 비율도 66.5%에서 59.2%로 7.3%p 감소했다.

<표 5>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중분류 기준)

산업(제조업 업종)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음식료	128	92	36	9	8	27	28.1	7.0	6.3	21.1
섬유의복가죽	27	23	4	1	1	3	14.8	3.7	3.7	11.1
화학물질	126	93	33	4	4	29	26.2	3.2	3.2	23.0
철강금속	99	59	40	2	2	38	40.4	2.0	2.0	38.4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	393	321	72	8	7	64	18.3	2.0	1.8	16.3
전기장비	37	29	8	3	3	5	21.6	8.1	8.1	13.5
기계 및 장비	62	52	10	4	4	6	16.1	6.5	6.5	9.7
자동차 및 트레일러	261	215	46	7	7	39	17.6	2.7	2.7	14.9

조선	130	50	80	3	3	77	61.5	2.3	2.3	59.2
기타	238	187	51	14	14	37	21.4	5.9	5.9	15.5
제조업	1,501	1,122	379	54	52	325	25.2	3.6	3.5	21.7
비제조업	3,254	1,716	1,538	960	875	578	47.3	29.5	26.9	17.8
전산업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 5. 시도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633개(47.8%)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96개(17.4%)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수를 보면 서울이 281만 명(59.2%)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74만 명(15.6%)로 두 번째로 많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2,362개(69.1%)고, 노동자 수가 370만 명(77.9%)이다. 이것은 그만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59.7%)과 울산(52.9%), 경남(45.5%)이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27.8%)과 충북(27.9%)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 업종이 밀집한 울산(40.7%)과 전남(39.3%), 경남(38.4%)이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대구(34.1%)와 광주(30.3%)가 높다.

<표 6>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시도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서울	1,633	2,812	1,609	1,203	681	610	522	42.8	24.2	21.7	18.6
부산	195	151	86	65	44	42	21	43.3	29.2	27.5	14.1
대구	88	82	48	35	28	28	7	42.3	34.1	33.5	8.2
인천	133	147	96	51	25	24	26	34.9	17.1	16.4	17.8
광주	63	54	31	22	16	15	6	41.8	30.3	28.4	11.4
대전	78	81	52	29	21	18	8	36.2	26.4	22.6	9.8
울산	58	97	46	51	12	12	39	52.9	12.2	12.1	40.7
세종	13	8	5	3	2	2	1	35.9	21.1	21.1	14.8
경기	596	741	510	231	116	110	115	31.2	15.7	14.9	15.5
강원	41	33	23	10	5	4	6	31.3	14.0	13.3	17.4
충남	90	78	56	22	12	12	10	27.8	15.1	14.9	12.7
충북	66	49	35	14	9	8	5	27.9	17.6	17.2	10.3
전남	52	44	18	27	9	9	17	59.7	20.3	20.0	39.3
전북	43	36	26	10	5	5	5	28.7	14.0	14.0	14.7
경남	131	197	107	90	14	13	76	45.5	7.1	6.6	38.4
경북	108	125	79	46	12	11	35	36.8	9.3	9.1	27.6
제주	30	18	11	7	4	4	3	37.1	22.5	21.2	14.6
전지역	3,418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

전체 3,403개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02개 (5.9%)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802개(23.6%)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28개(0.8%)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414개(12.1%)다.

한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02개 기업 10만 5천명 가운데 60개 기업 4만 6천 명은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 용역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표 7>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구성(%)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0%	202	105	105	0	0	0	0	0.0	0.0	0.0	0.0
10% 미만	802	588	559	29	17	15	12	4.9	3.0	2.5	2.0
10-20%미만	513	864	738	127	51	45	76	14.7	5.9	5.3	8.8
20-30%미만	372	681	514	167	52	50	114	24.5	7.7	7.4	16.8
30-40%미만	288	513	339	175	79	71	95	34.0	15.4	13.9	18.6
40-50%미만	185	310	171	139	61	53	78	44.8	19.7	17.2	25.1
50-60%미만	189	341	153	188	97	87	90	55.1	28.6	25.4	26.5
60-70%미만	170	393	134	259	85	72	173	65.8	21.7	18.3	44.1
70-80%미만	131	266	64	201	97	89	104	75.8	36.5	33.6	39.2
80-90%미만	137	285	46	238	120	98	118	83.7	42.2	34.3	41.5
90-100%미만	386	394	14	380	340	335	39	96.4	86.3	85.2	10.0
100%	28	15	0	15	14	12	1	100	91.6	77.4	8.4
전체	3,403	4,755	2,838	1,917	1,015	928	902	40.3	21.3	19.5	19.0

주: 공시대상 3,418개 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이 무응답

## 7. 재벌 기업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1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는 1,266개다. 노동부가 2017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이들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367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8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2만 명(40.2%)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7만 명(9.5%)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55만 명(30.7%)이다.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표 8>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대기업집단(31개)	1,266	367	1,801	1,077	724	171	120	553	40.2	9.5	6.7	30.7
10대재벌	647	227	1,268	792	476	102	87	374	37.6	8.1	6.8	29.5
11-20대재벌	340	92	400	216	185	58	25	126	46.1	14.5	6.4	31.6
21-31대재벌	279	48	132	69	63	11	8	53	47.9	8.0	6.1	39.8

10대 재벌 노동자 127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8만 명(37.6%)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8.1%)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7만 명(29.5%)이다. 하위 재벌에서 비정규직 비율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아진다. 비정규직 비율은 11-20대 재벌 46.1%, 21-31대 재벌 47.9%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1-20대 재벌 31.6%, 21-31대 재벌 39.8%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삼성(14만1천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7만3천명), 롯데(7만명), 현대중공업(4만5천명), SK(3만3천명), GS(2만8천명), LG(2만6천명), 한화(2만3천명), 농협(1만9천명), 포스코(1만8천명) 순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GS(58.9%)가 가장 높고, 롯데(54.6%), 현대중공업(53.2%) 한화(43.7%), 농협(42.4%), 포스코(42.2%), 삼성(37.4%), 현대자동차(32.6%), SK(31.7%), LG(16.2%) 순이다.

<표 9> 대기업 집단별 비정규직 규모(2017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삼성	62	41	376	236	141	16	14	125	37.4	4.3	3.8	33.2
현대자동차	53	28	226	152	73	12	12	61	32.6	5.4	5.3	27.2
에스케이	96	33	103	71	33	4	3	29	31.7	3.8	3.3	27.9
엘지	68	29	163	136	26	6	6	20	16.2	3.7	3.4	12.5
롯데	90	28	128	58	70	32	22	38	54.6	25.2	16.8	29.4
포스코	38	10	44	25	18	1	1	17	42.2	2.7	2.7	39.5
지에스	69	15	47	19	28	11	9	17	58.9	22.3	18.5	36.5
한화	61	19	52	29	23	6	6	17	43.7	11.9	11.7	31.9
현대중공업	29	9	84	39	45	3	3	41	53.2	4.0	4.0	49.1
농협	81	15	45	26	19	10	10	9	42.4	23.2	23.2	19.1
신세계	37	13	73	40	33	15	4	18	45.0	20.1	5.6	24.9
케이티	38	15	64	51	13	5	5	8	20.4	8.5	7.0	11.9
두산	26	7	27	16	11	2	2	9	41.6	7.0	7.0	34.7
한진	34	10	46	27	19	3	3	16	41.7	6.3	6.0	35.5
씨제이	70	15	72	32	40	24	3	16	55.7	33.2	3.8	22.5
부영	22	5	11	2	9	1	1	8	83.2	6.8	6.8	76.4
엘에스	45	7	12	9	3	0	0	2	22.5	4.1	4.1	18.4
대림	26	5	32	6	26	6	6	20	80.3	17.9	17.9	62.5
금호아시아나	28	12	29	22	8	3	2	5	26.1	8.5	8.5	17.6
대우조선해양	14	3	35	11	24	0	0	24	68.0	0.4	0.4	67.6
미래에셋	41	4	7	6	2	1	1	1	24.0	16.4	16.4	7.6
에쓰오일	2	1	4	3	1	0	0	1	29.1	3.8	3.8	25.3
현대백화점	29	8	26	11	15	3	1	13	58.6	9.9	4.0	48.7
오씨아이	22	5	8	4	4	0	0	4	47.3	3.6	3.6	43.7
효성	46	8	25	18	7	2	1	5	28.9	7.9	3.9	21.1
영풍	23	5	8	4	4	0	0	4	55.0	1.1	1.1	53.9
케이티앤지	9	3	9	6	3	0	0	3	30.8	2.2	2.2	28.6
한국투자금융	28	1	3	2	1	1	1	0	33.9	21.2	20.8	12.7
대우건설	14	2	22	4	18	3	3	15	80.6	12.6	12.6	68.0
하림	58	7	8	5	3	0	0	3	36.2	3.6	3.6	32.6
케이씨씨	7	4	12	7	6	1	1	5	44.6	4.5	4.5	40.1

10대 재벌 소속 계열사는 2016년 3월 598개에서 2017년 3월 647개로 1년 만에 49개 증가했다. 농협이 45개에서 81개로 36개 증가하고, SK가 86개에서 96개로 10개 증가했다.

그러나 10대 재벌의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33개에서 227개로 6개 감소했다. 삼성이 5개, 현대중공업이 1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하거나 변함이 없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31만 명에서 127만 명으로 4만 명 감소했다. 특히 조선 업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현대중공업에서 2만 명 감소하고, 포스코에서 2만 명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증가한 그룹은 농협 1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감소한 그룹은 포스코, 한화, LG, SK 4개다.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2개고,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 롯데, GS 3개다.

[그림 4] 10대 재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증감(2016-17년, 단위: 천명)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증가) 삼성(-3,8), 롯데(-8,10), GS(-1,3)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증가) 농협(1,1)
(정규직 감소, 비정규직 감소) 포스코(-6,-16), 한화(-6,-0), LG(-2,-1),SK(-1,-1)	(정규직 증가, 비정규직 감소) 현대자동차(2,-1), 현대중공업(2,-23)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은 롯데가 47.4%에서 54.6%로 7.2%p 증가했고, 다음으로 한화가 39.7%에서 43.7%로 4.0%p 증가했다. GS는 56.5%에서 58.9%로 2.4%p 증가했고, 삼성은 35.8%에서 37.4%로 1.6%p 증가했다.

조선 업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내하청이 크게 줄어든 현대중공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65.2%에서 53.2%로 12.0%p 감소했고, 포스코는 52.6%에서 42.2%로 10.4%p 감소했다.

<표 10>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 추이(2016-2017년)

연도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수(개)	조사 기업수(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 수(천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간접 고용
2016년	10대재벌	598	233	1,310	813	496	96	399	39.1	7.6	31.5
	삼성	59	36	372	239	133	16	117	35.8	4.3	31.5
	현대자동차	51	28	224	150	74	14	60	33.0	6.3	26.8
	에스케이	86	34	106	72	34	4	30	32.1	4.1	28.0
	엘지	67	31	165	138	27	5	22	16.6	2.9	13.6
	롯데	93	30	126	66	60	25	34	47.4	20.3	27.1
	포스코	45	15	65	31	34	4	30	52.6	6.2	46.4
	지에스	69	15	45	20	25	9	16	56.5	20.0	36.5
	한화	57	20	59	35	23	6	17	39.7	10.7	29.0
	현대중공업	26	8	105	37	68	3	65	65.2	3.2	62.0
	농협	45	16	43	25	18	10	8	42.4	23.8	18.6

2017년	10대재벌	647	227	1,268	792	476	102	374	37.6	8.1	29.5
	삼성	62	41	376	236	141	16	125	37.4	4.3	33.2
	현대자동차	53	28	226	152	73	12	61	32.6	5.4	27.2
	에스케이	96	33	103	71	33	4	29	31.7	3.8	27.9
	엘지	68	29	163	136	26	6	20	16.2	3.7	12.5
	롯데	90	28	128	58	70	32	38	54.6	25.2	29.4
	포스코	38	10	44	25	18	1	17	42.2	2.7	39.5
	지에스	69	15	47	19	28	11	17	58.9	22.3	36.5
	한화	61	19	52	29	23	6	17	43.7	11.9	31.9
	현대중공업	29	9	84	39	45	3	41	53.2	4.0	49.1
	농협	81	15	45	26	19	10	9	42.4	23.2	19.1
증감	10대재벌	49	-6	-42	-21	-20	6	-25	-1.5	0.5	-2.0
	삼성	3	5	4	-3	8	0	8	1.6	-0.0	1.7
	현대자동차	2	-	2	2	-1	-2	1	-0.4	-0.9	0.4
	에스케이	10	-1	-3	-1	-1	-0	-1	-0.4	-0.3	-0.1
	엘지	1	-2	-2	-2	-1	1	-2	-0.4	0.8	-1.1
	롯데	-3	-2	2	-8	10	7	4	7.2	4.9	2.3
	포스코	-7	-5	-21	-6	-16	-3	-13	-10.4	-3.5	-6.9
	지에스	-	-	2	-1	3	2	1	2.4	2.3	0.0
	한화	4	-1	-7	-6	-0	0	-0	4.0	1.2	2.9
	현대중공업	3	1	-21	2	-23	0	-24	-12.0	0.8	-12.9
	농협	36	-1	2	1	1	0	1	-0.0	-0.6	0.5

## 8. 1만명 이상 거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거대기업은 58개사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36만 명이고 비정규직은 58만 명(42.5%)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3만 명(31.5%)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15만 명(11.0%)보다 많다.

현대산업개발(92.6%), 롯데건설(82.9%), 현대건설(82.8%), 대우건설(80.5%), 대림산업(80.4%), 삼성엔지니어링(80.0%) 등 건설 6개사와 한국맥도날드(90.7%), 이랜드파크외식사업부(85.7%), 씨제이푸드빌(81.0%), 스타벅스커피코리아(80.1%) 등 외식 4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는다. 이에 비해 한국지엠(9.6%)은 10%가 안 된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표 11> 1만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회사이름	산업	노동자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아모레퍼시픽	20	13,067	5,783	7,284	484	484	6,800	55.7	3.7	3.7	52.0
효성	20	11,517	7,628	3,889	363	363	3,526	33.8	3.2	3.2	30.6
LG화학	20	19,727	16,584	3,143	185	185	2,958	15.9	0.9	0.9	15.0
현대제철	24	23,105	11,140	11,965	198	198	11,767	51.8	0.9	0.9	50.9
포스코	24	32,398	16,634	15,764	243	243	15,521	48.7	0.8	0.8	47.9
삼성전자	26	125,819	96,730	29,089	1,158	699	27,931	23.1	0.9	0.6	22.2
에스케이하이닉스	26	28,341	22,545	5,796	81	81	5,715	20.5	0.3	0.3	20.2
삼성에스디아이	26	10,673	8,694	1,979	562	560	1,417	18.5	5.3	5.2	13.3
삼성디스플레이	26	28,545	24,163	4,382	121	38	4,261	15.4	0.4	0.1	14.9
삼성전기	26	12,571	11,121	1,450	52	15	1,398	11.5	0.4	0.1	11.1
엘지전자	26	41,790	37,061	4,729	769	660	3,960	11.3	1.8	1.6	9.5
엘지디스플레이	26	36,400	32,662	3,738	132	109	3,606	10.3	0.4	0.3	9.9
현대모비스	30	15,127	9,051	6,076	347	345	5,729	40.2	2.3	2.3	37.9
현대자동차	30	77,865	65,405	12,460	2,592	2,592	9,868	16.0	3.3	3.3	12.7
기아자동차	30	38,720	33,702	5,018	306	306	4,712	13.0	0.8	0.8	12.2
한국지엠부평공장	30	17,596	15,906	1,690	21	21	1,669	9.6	0.1	0.1	9.5
대우조선해양	31	34,093	10,334	23,759	83	83	23,676	69.7	0.2	0.2	69.4
현대삼호중공업	31	11,698	3,677	8,021	91	91	7,930	68.6	0.8	0.8	67.8
현대중공업	31	44,574	20,236	24,338	1,163	1,163	23,175	54.6	2.6	2.6	52.0
현대산업개발	41	14,060	1,038	13,022	1,040	1,040	11,982	92.6	7.4	7.4	85.2
롯데건설	41	12,774	2,179	10,595	2,151	2,151	8,444	82.9	16.8	16.8	66.1
현대건설	41	25,513	4,383	21,130	3,578	3,559	17,552	82.8	14.0	13.9	68.8
대우건설	41	20,915	4,079	16,836	2,409	2,409	14,427	80.5	11.5	11.5	69.0
대림산업	41	23,249	4,562	18,687	4,132	4,131	14,555	80.4	17.8	17.8	62.6
삼성엔지니어링	41	22,622	4,535	18,087	995	990	17,092	80.0	4.4	4.4	75.6
포스코건설/본사	41	16,377	3,626	12,751	1,980	1,980	10,771	77.9	12.1	12.1	65.8
에스케이건설	41	19,577	4,381	15,196	880	880	14,316	77.6	4.5	4.5	73.1
지에스건설	41	21,562	5,291	16,271	3,956	3,956	12,315	75.5	18.3	18.3	57.1
삼성중공업건설	41	38,568	11,599	26,969	419	398	26,550	69.9	1.1	1.0	68.8
삼성물산	41	26,251	9,728	16,523	3,106	3,062	13,417	62.9	11.8	11.7	51.1

롯데리아	47	10,385	2,237	8,148	8,145	7,393	3	78.5	78.4	71.2	0.0
롯데쇼핑	47	42,078	15,181	26,897	13,878	4,024	13,019	63.9	33.0	9.6	30.9
홈플러스	47	23,905	13,147	10,758	6,784	2,078	3,974	45.0	28.4	8.7	16.6
이마트	47	38,524	26,445	12,079	3,187	1,850	8,892	31.4	8.3	4.8	23.1
포워드벤처스	49	12,404	3,565	8,839	2,095	2,095	6,744	71.3	16.9	16.9	54.4
씨제이대한통운	49	14,896	4,813	10,083	193	193	9,890	67.7	1.3	1.3	66.4
서울메트로	49	12,264	10,100	2,164	106	106	2,058	17.6	0.9	0.9	16.8
대한항공	51	25,207	18,377	6,830	1,508	1,497	5,322	27.1	6.0	5.9	21.1
아시아나항공	51	10,384	8,546	1,838	280	269	1,558	17.7	2.7	2.6	15.0
한국맥도날드	56	18,446	1,719	16,727	16,722	14,464	5	90.7	90.7	78.4	0.0
이랜드파크외식사업	56	12,297	1,764	10,533	10,533	10,526	-	85.7	85.7	85.6	-
씨제이푸드빌	56	14,725	2,793	11,932	11,439	11	493	81.0	77.7	0.1	3.3
스타벅스커피코리아	56	11,188	2,221	8,967	8,882	-	85	80.1	79.4	-	0.8
삼성웰스토리	56	13,798	4,461	9,337	2,719	2,312	6,618	67.7	19.7	16.8	48.0
아워홈	56	11,611	5,406	6,205	4,083	2,791	2,122	53.4	35.2	24.0	18.3
KT	61	26,728	23,298	3,430	103	103	3,327	12.8	0.4	0.4	12.4
삼성에스디에스	62	17,315	13,332	3,983	308	206	3,675	23.0	1.8	1.2	21.2
농협은행	64	19,864	13,469	6,395	2,971	2,971	3,424	32.2	15.0	15.0	17.2
신한은행	64	18,249	13,633	4,616	791	546	3,825	25.3	4.3	3.0	21.0
국민은행	64	22,177	16,959	5,218	1,295	1,295	3,923	23.5	5.8	5.8	17.7
우리은행	64	18,483	14,874	3,609	871	774	2,738	19.5	4.7	4.2	14.8
하나은행	64	16,322	13,552	2,770	477	477	2,293	17.0	2.9	2.9	14.0
유니에스	75	11,102	3,090	8,012	8,012	8,012	-	72.2	72.2	72.2	-
에스원	75	16,732	5,919	10,813	292	292	10,521	64.6	1.7	1.7	62.9
케이텍맨파워	75	10,151	7,006	3,145	3,145	3,145	-	31.0	31.0	31.0	-
가톨릭학원	84	17,938	12,453	5,485	2,898	2,898	2,587	30.6	16.2	16.2	14.4
연세대학교	85	19,430	12,660	6,770	3,889	3,865	2,881	34.8	20.0	19.9	14.8
아산사회복지재단	86	11,747	8,064	3,683	1,221	1,215	2,462	31.4	10.4	10.3	21.0
58개사		1,363,444	783,541	579,903	150,424	108,200	429,479	42.5	11.0	7.9	31.5

## 9. 합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합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6년 8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4만 명(전체 노동자의 12.4%)이고 비정규직 비율이 14.2%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위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418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4만명)보다 2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3%로 통계청 조사(14.2%)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행정통계’에서 2015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58만 명(전체 노동자의 39.6%)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을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면, 제조업이 912개(26.7%)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6개(20.4%)로 두 번째로 많다. 노동자 수를 보더라도 제조업이 150만 명(31.6%)으로 가장 많고,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69만 명(14.4%)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한 아웃소싱으로 인력파견 용역사업이 번창했음을 말해준다.

셋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2만 명(40.3%)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2만 명(21.3%),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 명(19.0%)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9만 명을 정규직 31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5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3만 명(46.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6만 명(32.9%)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6만 명(13.9%)으로 줄어든다.

넷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2%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2.5%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8%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1.5%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다섯째,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37.6%로, 간접고용 비정규직(29.5%)이 직접고용 비정규직(8.1%)보다 4배 많다. 특히 GS(58.9%), 롯데(54.6%), 현대중공업(53.2%)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LG는 비정규직 비율이 16.2%로 10대 재벌 중 가장 낮다.

여섯째, 지난 1년 사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재벌은 삼성, 롯데, GS 3개다.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47.4%에서 54.6%로 7.2%p 증가했고, 한화는 39.7%에서 43.7%로 4.0%p 증가했다. GS는 56.5%에서 58.9%로 2.4%p 증가했고, 삼성은 35.8%에서 37.4%로 1.6%p 증가했다. 조선 업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사내하청이 크게 줄어든 현대중공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65.2%에서 53.2%로 12.0%p 감소했고, 포스코는 52.6%에서 42.2%로 10.4%p 감소했다.

일급제,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 2016년에는 190만 명(40.1%),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여덟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90만 명이고, 10대 재벌 대기업은 40만 명이다. 대기업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지속적 일자리아자 불법파견이다. 정부는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해 이들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